

Addict : 중독자

S#1 골목길 (Out / Night)

사람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, 안개 속에서 하얀 우산을 쓴 희가 걸어 나온다.

희의 우산 위로 툭, 툭, 무언가 떨어진다.

우산을 확인하는 희, 다양한 색의 물감들이 우산 위에 묻어있다.

동시에 들려오는 부스럭 소리에 당황한 희는 우산을 좀 더 몸쪽으로 끌어안고, 불안해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린다.

그때 그녀의 하얀 원피스 어깨에 분홍 물감이 한 방울 묻는다. 물감을 확인 한 희는 물감의 출처를 짐작하고, 어디론가 향한다.

S#2 아지트 (In / Night)

문을 박차고 빈과 진의 아지트에 들어온 희, 빈과 진은 그녀가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 당황한 기색 없이 웃으며 반긴다.

빈 : (쇼파에서 일어나 희에게로 걸어가며) 어, 왔어?

진 : (쇼파에 몸을 기대고 웃으며 빈에게) 내가 올거라고 했지?

빈 : (희의 어깨를 보며) 피오니 핑크야. 그 색 이름.

희 : (밀려오는 화를 참으며 빈과 진을 번갈아 본다.)

빈 : 피오니 알지? 작약. 꽃말이 수줍음이라. 너랑 진짜 잘 어울리지

진 : 우리가 다 네 생각 하면서 준비한거야. 어때, 마음에 들어?

희 : (어이없어하며) 뭐...? 너네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...

진 : (쇼파에서 일어나 자켓을 입으며 희의 말을 끊는다) 뭐, 여기 온 김에 구경이라도 좀 하고 가.

빈과 진의 태도에 병찢 희는 그대로 굳어버린다. 빈은 그런 희를 달래며 진을 따라 아지트의 또 다른 공간으로 안내한다.

진 : (물감이 잔뜩 묻은 농구공을 튀기며) 농구 할 줄 알아?

희 : 아니. 관심 없어.

희 : (농구공을 잠깐 응시한다.) ... 더러워.

진 : (피식 웃으며 희에게 공을 패스한다.)

희 : (얼떨결에 공을 받고, 짜증난다는 듯이 공을 던져버린다.)

진 : (폭소하며) 야, 아 왜그래 재밌잖아. 다시, 나한테 던져봐

진은 다시 또 다른 공을 희의 손에 쥐어주고, 희는 계속해서 던져버린다. 그러자 진이 공을 따라가서 잡아내고, 그 모습을 본 희는 피식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한다.
그 모습을 보고있던 빈은 아지트 밖으로 나간다.

S#3 아지트 창문 앞 (Out / Night)

(Long take)

빈은 아지트 창 앞에서 담배를 하나 문다.

처음엔 진의 목소리만 조금씩 들릴 뿐 조용하던 아지트 안에서 조금씩 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며 이내 시끌벅적해진다.

담배를 다 태운 빈은 다시 아지트 안으로 들어간다.

S#4 아지트 (In / Night)

아지트 내부로 들어온 빈, 아지트 중앙에는 물감 등이 잔뜩 묻은 채 앉아있는 희가 있다.

희의 옆에 쫓그려 앉아있던 진은 전보다는 조금 차가워진 얼굴로 일어서며 불 한 쪽에 묻은 물감을 닦아낸다.

빈은 그런 진에게 잠시 눈길을 준 후 희에게로 다가가 물감이 묻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으며 꼭 안아준다.